

여호수아서

제 4 강

언약의 충성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이웅 (Pasto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7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copyright ©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여호수아서(The Book of Joshua)

제 4 강 언약의 충성(Covenant Loyalty)

목차(Contents)

I. 서론(INTRODUCTION)	1
II. 언약의 경고(COVENANT WARNINGS).....	2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3
1. 여호수아의 소집(Joshua's Summons)	3
2. 여호수아의 설교(Joshua's Speech).....	4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9
1. 하나님의 권위(Divine Authority)	10
2.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10
3. 모세 율법의 규정(Standard of Moses' Law)	11
4.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God's Supernatural Power).....	12
5. 온 이스라엘(All Israel).....	12
III. 언약의 갱신(COVENANT RENEWAL)	14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14
1. 소집(Summons).....	14
2. 설교와 반응들(Speech & Responses)	15
3. 비준 의식(Ratification Ceremony)	19
4. 해산(Dismissal)	20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20
1. 하나님의 권위(Divine Authority)	21
2.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22
3. 모세 율법의 규정(Standard of Moses' Law)	22
4.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God's Supernatural Power).....	23
5. 온 이스라엘(All Israel).....	24

IV.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25
A. 개시(Inauguration).....	28
B. 지속(Continuation).....	31
C. 완성(Consummation).....	33
V. 결론(CONCLUSION).....	34

여호수아서(The Book of Joshua)¹

제 4 강 언약의 충성(Covenant Loyalty)

I. 서론(INTRODUCTION)

한 등장 인물이 거의 모든 장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연극 작품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가 그 작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장면에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와 전체 드라마의 웅대한 의미를 관객들에게 설명한다고 상상해 보라.

여러 면에서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호수아는 책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두 번의 설교를 한다. 이 설교들을 사용하여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 전체의 심오한 의미를 밝힌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강좌의 네 번째 강의이고 그 제목은 “언약의 충성”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조건을 충실히 지키라고 촉구하는 여호수아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주요 부분이 어떻게 책의 의미를 밝히는지 탐구할 것이다.

이 강좌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원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호수아서는 후세대들이 직면한 유사한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승리의 정복, 지파들의 기업,
언약의 충성에 관해 기록되었다.

여호수아서는 원래 구약의 사사 시대나 왕정 시대나 바벨론 유수 기간에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것은 원래

¹ **Dr. Seth Tarrer (Host)** is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Biblical Languages at Knox Theological Seminary. Dr. Tarrer received his M.Div. from Beeson Divinity School and his Ph.D. from University of St. Andrews. He is a member of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nd has taught at seminaries in Buenos Aires, Argentina, and Medellin, Colombia. He is the author of *Reading with the Faithful: Interpretation of True and False Prophecy in the Book of Jeremiah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Eisenbrauns, 2013).

청중이 그들의 대적들, 그들의 조국,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특권과 책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이전 강의에서 배웠듯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자는 책을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부분(1-12 장)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정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번째 부분(13-22 장)에서 그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에 주의를 기울였다. 세 번째 부분(23-24 장)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충성에 집중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주요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여호수아서의 세 번째 부분은 두 개의 설교와 후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경고를 준 설교(수 23:1-16)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것은 언약 갱신의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주어진 두 번째 설교(수 24:1-28)로 이어지고,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이후의 몇몇 사건을 전하는 간략한 후기(수 24:29-33)로 마무리된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충성에 관한 우리의 강의는 이 마지막 장들(23-24 장)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먼저 여호수아가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준 언약의 경고(수 23:1-16)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수 24:1-28)을 살펴보고 뒤따르는 후기(수 24:29-33)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이 마지막 장들(23-24 장)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을 탐구할 것이다. 그럼 먼저 여호수아가 준 언약의 경고를 살펴보자.

II. 언약의 경고(COVENANT WARNINGS)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자주 청중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그러한 경고를 “언약”이라는 성경적 개념과 선뜻 연관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만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강좌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그들에게 베푸신 은택에 자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여호수아서

23 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언약을 어길 때 오는 심판에 대한 경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익숙한 패턴을 다시 사용하여 우리는 여호수아의 언약의 경고를 탐구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이 단락의 구조와 내용을 고찰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그것의 원래 의미, 곧 그것이 원래의 청중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그럼 먼저 여호수아서 23 장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자.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의 중심부를 정복한 후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에서 큰 전투를 벌여 남부와 북부도 정복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또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들의 특정한 기슭에 정착하도록 돌려보내며 이스라엘의 거국일치를 유지시켰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이 지점에 이르러 저자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영토에 있는 (십중팔구) 실로에서 열었던 집회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로부터 중대한 교훈을 듣기 위해 그 곳에 모였다.

우리의 목적상 여호수아서 23 장을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수 23:1-2a 에 나오는 첫 단계인 여호수아의 소집을 살펴보자.

1. 여호수아의 소집(Joshua's Summons)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모았던 다른 여러 때들도 여호수아서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여호수아 23 장에 나오는 이 소집에 대한 묘사는 저자가 이 집회를 이전 모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시사한다.

첫째로, 저자는 수 23:1 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표현이 책의 두 번째 주요 부분(13-22 장)을 시작하는 수 13:1 에 나왔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일이 "오랜 후에" 일어난 것이라는 추가 설명을 발견한다. 이와 같은 맥락을 따라 여호수아는 수 23:2 에서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하며 설교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수 23:14 에서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곧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호수아의 고령에 대한 저자의 강조는 이 집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의 마지막 행위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원래 청중에게 속한 모든 신실한 이스라엘 자손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해했을 것이다.

둘째로, 여호수아서 23 장 2 절은 또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소집했다.”라고 언급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과 대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위 레위인들이나 대제사장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라. 오히려 그는 백성과 빈번한 접촉을 하는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여호수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은 바로 여기 언급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의 책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회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일,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제기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집회에서 무엇이 그토록 중요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여호수아서 23 장의 두 번째 단계인 여호수아의 설교에서 찾을 수 있다. 여호수아는 수 23:2b-16 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2. 여호수아의 설교(Joshua's Speech)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시기 위해 세우신 핵심 운영 원리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언약의 역학적 원리를 세 가지 주요 범주, 곧 하나님의 은택, 인간의 충성, 그리고 충성 여부에 따른 결과인 복과 저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그분의 모든 언약을 시작하고 지탱하는지를 염두에 둔다. 인간은 자신의 공로나 힘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은 항상 필수적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마땅히 보여야 할 충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비추어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라는 말씀을 들어왔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복과 저주의 결과도 수반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그들은 그분의 풍성한 복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불충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들은 그분의 저주를 경험하게 된다.

성경 저자들은 이런 역학적 원리가 사람들에게 자주 불가해한 방식으로 전개된다고 지적했다.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심판은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의 언약 조건에 신실하시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하심과 지식과 지혜로 그것을 집행하신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23 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설교는 언약의 세 가지 역학적 원리를 모두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불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임할 저주에 대한 경고를 주로 강조했다.

(오르난 크루즈[Ornan Cruz] 목사)² 여호수아가 23 장에서 백성에게 설교할 때, 그는 언약의 경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호수아는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여호수아서 전체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택에 관하여 이야기해 왔다. 여호수아서의 하나님은 전쟁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보살핌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께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순종에 관하여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다른 모든 언약과 마찬가지로, 이 언약도 먼저 힘이 더 약한 왕과 언약을

² **Pastor Ornan Cruz** is Pastor of Los Pinos Nuevos in Cuba.

맺는 강한 왕을 밝히고 그 강한 왕이 베푼 은택을 말한 후 충성하라는 명령을 주며 이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곧 충성과 불충성의 결과를 선언한다. 여호수아서 전체가 보여 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말한 후, 여호수아는 그분의 백성도 역시 그들의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중요한 집회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자는 그의 설교를 세 부분으로 요약했다. 각 부분은 하나님의 은택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어서 언약의 충성, 혹은 언약의 결과, 아니면 둘 모두에 초점을 맞춘다.

a) 수 23:2b-8

여호수아의 설교의 첫 번째 부분(수 23:2b-8)은 이스라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택에 대한 두 가지 예로 시작한다. 여호수아는 수 23:3 에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정복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 너희를 위하여 싸웠기” 때문임을 상기시켰다. 여호수아는 수 23:4 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을 상기시켰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수 23:6).”고 촉구했다. 이 말은 수 1:7 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익숙한 표현에 이어서 나오는 특정한 종류의 충성스러운 섬김에 대한 요구를 발견한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사회의 부패한 관행을 피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듣는다. 여호수아는 수 23:7 에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과 섞이지 말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고 명했다. 여호수아는 수 23:8 에서 이스라엘에게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여호수아가 우상 숭배를 금지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십계명의 처음 두 계명 그리고 거짓 신들이 타락하게 하는 영향력에 대하여 경고한 모세 오경의 다른 많은 구절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언급함으로써, 저자는 이 문제가 책의 이전 장들에서 썼던 모든 것에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감안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신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었다.

b) 수 23:9-13

여호수아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수 23:9-13)도 역시 하나님의 은택으로 시작한다. 여호수아는 수 23:9 에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수 23:10 에서 지금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수 23:11 에서 여호수아는 첫 번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충성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들에게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였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신명기 6 장 5 절, 즉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언급했다. 이 친숙한 구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한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다른 신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오직 여호와께만 헌신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두 번째 부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 이 일편단심의 헌신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나타내기 위해, 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불충하면 그것의 심각한 결과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 23:12-13 에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덧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의 길을 따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였다.

이렇게 저주에만 오로지 초점을 맞춘 것은 여러 면에서 이례적이다. 출 19:4-6 과 같은 구절에는 미래의 복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만이 언급되어 있다. 신명기 28 장과 신 30:15-19 과 같은 구절에는 복의 제공과 저주의 위협이 서로 나란히 나온다. 그러나 수 23:12-13 에서 여호수아는 미래에 있을 결과로 오직 **저주**만을 언급했다.

c) 수 23:14-16

그의 설교의 세 번째 부분(수 23:14-16)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의 은택으로 시작했다. 우리는 수 23:14 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읽는다. 이 진술은 저자가 비슷한 확언을 했던 수 21:45 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충성에 대한 요구를 건너뛰고 대신에 곧바로 언약 위반이 가져올 심각한 결과를 이스라엘에게 경고했다. 그는 수 23:15 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레위기 26 장과 신명기 4 장과 28 장과 같은 곳에서 가르치듯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약속의 땅에서의 추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들 사이에 보이는 진전은 여호수아가 이 설교에서 힘주어 말한 주된 강조점을 드러나게 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여호와의 자비에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때 그들에게 닥칠 저주에 대하여 경고하고 싶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작은 실패에 대해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위협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수 23:16 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기 “범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동사 **גָּבַר**[아바르]를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이 용어를 아간의 경우(수 7:10, 15)처럼

중대하고 반역적인 범죄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단순한 불완전성이나 작은 과오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우상 숭배와 같은 야비한 배교, 혹은 그가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는 파괴적인 죄를 의미했다.

(제임스 해밀톤[James M. Hamilton] 박사)³ 여호수아서 23 장 16 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들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여호와와의 언약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의 처음 두 계명을 어기는 것과 그로 인해 수반되는 언약의 파기를 포함한다. 이것은 모세가 레위기 26 장에 나오는 언약의 복과 저주를 통해 백성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신 4:25-31 과 신명기 28-32 장을 통해 백성에게 하지 말라고 촉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멘토인 모세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그들이 계명들을 어기고 그럼으로써 여호와와의 언약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모세는 일어날 일, 곧 그들이 언약을 범하면 그 땅에서 추방될 것임을 경고했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언약을 지키므로써 그 땅에서 장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여호수아의 언약 경고(수 23 장)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그것의 원래 의미를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일반적으로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이 장을 통해 청중에게 주고 싶었던 영향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사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이미 언약의 저주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에

³ Dr. James M. Hamilton is Associate Professor of Biblical Theology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Preaching Pastor of Kenwood Baptist Church.

빠져들었기 때문이었다. 왕정 시대의 여러 시기에 훨씬 더 나쁜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이는 그들이 바알과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데 관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바벨론 유수가 여호수아가 말했던 대로 결국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저자는 원래의 청중이 그들의 곤란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지 못하신 탓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시련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했다.

원래의 청중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그들 자신의 책임을 납득시키기 위해, 저자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준 언약의 경고(수 23 장)를 다루며 우리가 책 전반에 걸쳐 살펴보았던 다섯 가지 주요 주제를 포함시켰다.

1. 하나님의 권위(Divine Authority)

첫째로, 저자는 여호수아의 소집에서 그 집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밝혔다. 그는 수 23:2a 에서 백성을 소집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고 언급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권위 있는 모세의 후계자로 재가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러므로 수 23:2a 에서 백성을 소집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고 수 23:2b-16 에 나오는 설교를 한 사람도 바로 여호수아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저자는 소집과 설교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했다.

우리가 이미 암시했듯이, 여호수아서 23장은 원래 청중 중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점을 제시했다. 많은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자는 여호수아 자신이 설교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원래 청중의 과묵함을 다루었다.

2.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둘째로, 여호수아의 설교에 나오는 언약의 경고가 하나님의 언약이란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저자는 수 23:4 에서 요단강 서편의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암시했다. 여러분은 "기업"에 대한 히브리어 용어 **קנין**[나할라]가 창 15:18 과 같은 구절에서 족장들에게 맹세로(또는 언약으로) 약속된 땅을 암시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여호수아가 수 23:16 에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함으로써 그의 설교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저자의 이러한 집중은 원래의 청중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많은 은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도록 촉구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저주가 가져올 심각한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3. 모세 율법의 규정(Standard of Moses' Law)

셋째로, 여호수아의 언약의 경고는 또한 여러 면에서 모세 율법의 규정을 부각시켰다. 여호수아는 그의 설교 중에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수 23:6)."고 명령했다. 여호수아는 신 6:5 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에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수 23:11)."고 명령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 민족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지시(수 23:11)와 이와 유사한 지시(수 23:8, 12)는 신 7:3 이나 신 10:20 과 같은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⁴

저자는 원래 청중에게 그의 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언급했는지 설명했다.

⁴ [역자 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수 23:7 의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 가지 말라[르빌티-보 바고임 하엘레, ׀ ׀ ׀]와 수 23:12 의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지[우드바크템 브예테르 하고임 하엘레, ׀ ׀ ׀] 말고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지[브히트하탄템 바헴, ׀ ׀ ׀] 말라는 지시는 신 7:3 의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블로 티트하텐 밤, ׀ ׀ ׀]"는 지시를 따른 것이다. 그리고 수 23:8 의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 가까이하라[바도나이 엘로헤헴 티드바쿠, ׀ ׀ ׀]"는 지시는 신 10:20 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라(개역개정)/그분을 단단히 붙들라(우리말성경)/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라(새번역/공동번역)[우보 티드바쿠, ׀ ׀ ׀]"는 지시를 따른 것이다. 개역개정에서 [다바쿠 브]가 "가까이 하다"와 "의지하다"로 번역된 것은 같은 어구가 사용된 것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영어 성경은 "hold fast to, cling to, cleave to, be loyal to, be faithful to"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모세 율법의 규정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4.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God's Supernatural Power)

넷째로, 여호수아의 언약의 경고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 장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의 소집에 대한 기록 가운데 수 23:1 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리킨다. 여호수아의 설교에도 동일한 주제가 여러 번 나온다. 여호수아는 수 23:3 에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상기시킨다. 그는 수 23:5 에서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원수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라.”고 확신시킨다. 그는 수 23:9 에서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말하며 이 주제를 반복했다. 그는 수 23:10 에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했다. 여호수아는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언급했다. 그는 수 23:15 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모든 악한 일도 내리시어 너희를 멸절시킬 수도 있으시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 23:6 에서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쳐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저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켰는지 반복해서 지적했다. 그는 여호수아의 설교가 그의 원래 청중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이끌기를 의도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불충에 대한 초자연적인 저주에 대한 모든 경고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켜 그들을 회개로 이끌도록 디자인했다.

5. 온 이스라엘(All Israel)

다섯째로, 여호수아서 23 장의 언약의 경고는 또한 온 이스라엘의 참여를 강조했다. 여호수아의 소집에 대해 전하는 여호수아서 23 장 2 절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았다고 언급한다. 여호수아의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결과로 올 저주에 대한 경고는 일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의 미래는 여호수아가 이 장에서 선언한 원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23 장의 이 주요 주제에 초점을 맞추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여호수아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다. 여호수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저자 시대의 온 백성도 여호수아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소망할 수 있었다.

(마이카 느구싸[Micah Ngussa] 목사)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웃들과 함께 살며 소름끼치는 끔찍한 관습들을 보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분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의 언약을 어기면 그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계속 일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준 언약의 경고를 전함으로써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의 언약의 충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번 강의의 두 번째 주요 주제인 여호수아가 행한 언약 갱신의 의식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⁵ **Pastor Micah Ngussa** is Director of Tanzania Children's Rescue Center.

III. 언약의 갱신(COVENANT RENEWAL)

여러 면에서 여호수아서 23 장의 드라마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경우 일어날 끔찍한 일에 대하여 경고하는 설교를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다. 여기서 저자는 여호수아서 24 장에서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 청중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들의 반응에 대한 어떤 기록도 생략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는 두 번째 집회를 열었다. 여기 언약 갱신의 의식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로 다시 다짐하였다. 그래서 이 의식은 원래 청중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배운 모든 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보여준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행한 언약 갱신의 의식에 대하여 평소의 방식대로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그것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한 후 그것의 원래 의미를 설명할 것이다. 그럼 먼저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수 24 장)의 구조와 내용을 고찰해보자.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여호수아서 23 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다양한 기업에 정착한 후 여호수아는 그들[의 대표자들]이 (십중팔구) 실로에 모이도록 소집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24 장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집회를 발견하는데 이번에는 세겜에서 열렸다.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성지였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창 12:7).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부근에 있었다. 이 두 산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한 곳이다(신 11:29; 27:1-26).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 장에서 세겜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행한 봉사의 정점에 이르는 곳이다.

세겜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은 네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뉘는 매끄러운 이야기다. 먼저 우리는 서두(수 24:1)에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집회를 소집한 것에 대하여 읽는다. 이 소집은 말미(수 24:28)에 여호수아가 집회를 해산한 것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둘[곧 서두의 소집과 말미의 해산] 사이에 나오는 주요 내러티브는 여호수아의 두 번째 설교와

이스라엘의 반응들(수 24:2-24), 그리고 언약의 비준(수 24:25-27)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먼저 수 24:1 에 나오는 서두의 소집을 고찰해보자.

1. 소집(Summons)

여호수아가 24 장에서 소집한 집회는 23 장에서 소집한 집회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이전 집회와 마찬가지로 수 24:1 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고 전한다. 이 집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막에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였다. 이것은 저자가 여호수아서 24장과 출애굽기 19-24장 사이의 유사한 점들을 묘사함으로써 이 사건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것 중 첫 번째 것이다. 출애굽기 19-24 장에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출애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여호수아가 주도한 언약 갱신도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가운데 이루어졌다.

2. 설교와 반응들(Speech & Responses)

여호수아의 소집에 대해 전한 후에 저자는 수 24:2-24 을 통해 여호수아의 설교와 이스라엘의 반응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여기 24 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설교는 23 장의 집회에서 행한 설교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기본적인 역학적 원리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택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충성을 촉구하고, 불충성에 따른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우상 숭배는 23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24 장에서도 특별한 관심사였다. 그러나 23 장과는 달리, 여기 24 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묘사되어 있다.

이 설교의 첫 번째 부분(수 24:2-3)은 하나님의 은택에 대한 긴 회고에 해당한다.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23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몇 가지 일들을 요약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수 24: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한다. 이 구절들 내내

여호수아는 그가 십중팔구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것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일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을 위해 그분이 행하셨던 것을 약 18 번이나 선언하셨다. 이러한 일인칭 관점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들었던 것들을 전하며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많은 은택을 직접적으로 상기시켜 주셨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역사의 세 시기에 걸쳐 이스라엘에 대해 베푸신 그분의 은택을 회고하셨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수 24:3-4 에서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 어떻게 선대 조상들에게 호의를 베푸셨는지를 회상하셨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수 24:5-10 에서 모세의 시대에 베푸셨던 그분의 호의에 대해 말씀하셨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수 24:11-13 에서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로 끝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수 24:12 에서 이스라엘의 적들이 패배한 것은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 24:13 에서 그들이 그들에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과 ...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주었다.”라고 덧붙이셨다. 주요 아이디어는 충분히 명확하다. 하나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은택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해야 했다.

(베츠[T. J. Betts] 박사)⁶ 나는 언약 [갱신] 의식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의 한 측면은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말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계속해서 다른 족장들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홍해 체험으로 나아갔고 그 후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를

⁶ Dr. T. J. Betts is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주셨는지를 주지시켰다. 그들은 이러한 이전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당대의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요점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한 역사적 교훈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줄곧 자기 백성과 함께 해 오셨고 계속해서 신실해 오셨음을 상기시켜 주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실해야 한다.

여호수아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수 24:14-24)에서 여호수아는 앞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회고한 것을 근거로 하여 충성에 대한 요구를 하고 불충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다. 출애굽기 19 장과 24 장에서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는 백성의 반응을 기대했고, 기대한 대로 반응을 받았다. 이 부분은 세 개의 권면과 반응으로 나뉜다.

a) 첫 번째 권면과 반응(First Call and Response)

첫 번째 권면과 반응은 수 24:14-18 에 나온다. 여호수아는 수 24:14 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권면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목적을 향한 첫 걸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너머 [메소포다미아]와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 24:15 에서 그는 그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했다. 여호수아가 23 장의 설교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거짓 신을 거부하라고 요구하신다고 힘주어 말했다. 여호수아는 잘 알려진 수 24:15 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며 모범을 보였다.

하나님 섬김이란 이 주제는 여호수아에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섬기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שָׁמַר**[아바드]가 여호수아서 24 장에서 16 번이나 사용되었다. 이스라엘은 수 24:16-18 에서 여호수아의 권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헌신을 표현했다. 우리는

백성이 수 24:18 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라고 대답한 것을 읽는다.

b) 두 번째 권면과 반응(Second Call and Response)

두 번째 권면과 반응은 수 24:19-22 에 나온다. 여호수아는 수 24:19 에서 회중에게 도전하며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와 상황에서 그들의 반역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재헌신할 수 없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죄를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수 24:20 에서 경고한 대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무서운 경고를 들은 후에 백성들은 수 24:21 에서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고 응답했다.

c) 세 번째 권면과 반응(Third Call and Response)

세 번째 권면과 반응은 수 24:23-24 에 나온다. 백성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들(수 24:18, 21, 22)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수 24:23 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외적 행동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임을 재천명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수 24:24 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라고 응답했다.

(마이클 글로도[Michael J. Glodo] 목사)⁷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들(23-24 장)은 여호와께 대한 배타적 충성의 필요성을 역설한

⁷ Rev. Michael J. Glodo is Associate Professor of Biblical Studies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Orlando, Florida.

여호수아의 설교를 담고 있다. 거기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한 권면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항상 가서 다른 신들을 좇아다니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토저(A. W. Tozer)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이 우상 숭배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인간 마음의 기본 법칙이다.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께 대한 배타적인 충성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성공할 뿐만 아니라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열방의 신들은 죽은 신이고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이 되고 말 것이지만[시 115:4-8] 여호와만 살아 계시고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께 신실함을 유지하고 (그분이 그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하였듯이) 그들이 그분께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미래에 그들의 소망과 생명과 번영의 유일한 원천이었다.

3. 비준 의식(Ratification Ceremony)

여호수아의 설교와 이스라엘의 반응을 전한 후에 이 내러티브는 수 24:25-27 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것에 대한 비준 의식을 전한다. 이 부분은 수 24:25 에 나오는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여호수아는 또한 수 24:26 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움”으로써 이 언약적 헌신을 비준했다.

여기에 언급된 상수리나무는 창 12:6 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를 연상시킨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다. 우리가 이 강좌 전반에 걸쳐 보았듯이, 돌들은 여호수아서에서 기념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는 수 4:7 에서 “영원한 기념”으로 길갈에 이스라엘을 위한 열두 돌을 세웠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수 22:34 에서 쌓은 제단은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로 세워졌다. 여호수아는 수 24:27 에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고 설명했다. 후세에 이 증거의 돌은 모든

우상 숭배를 거부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한 언약을 부인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할 밖에 없을 것이다.

4. 해산(Dismissal)

이러한 진지한 일을 전한 후,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에 대한 기록은 수 24:28 에서 여호수아가 집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끝난다. 저자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했다. 내러티브의 이러한 결말은 원래 청중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켰는가? 책을 마감하는 후기에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수 24:31)."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와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한동안 신의를 지켰지만, 후세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거듭거듭 어겼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원래 청중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겪었던 결과들을 알고 있었다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에 대한 이야기의 구조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것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자.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전반적으로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 청중에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명백하다. 저자가 여호수아서를 완성할 무렵,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 명백했다. 이스라엘에 있는 누군가가 그들이 왜 그렇게 심하게 고난을 당했는지 궁금해한다면, 여호수아서 24 장은 그들이 노골적으로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해 줄 것이다.

이전 강의들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원래 청중이 사사 시대, 아니면 왕정 시대, 아니면 더 늦은 바벨론 유수 기간에 살았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 백성은 여호수아서 24 장에서 여호수아가 갱신한

언약을 범한 것에 대한 혹독한 결과를 겪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 결과로 국가의 여러 지역이 패배와 구원의 순환을 겪었다. 왕정 시대에 우상 숭배는 온갖 고난을 초래했다. 북왕국에서는 반복되는 앗수르의 침략으로 결국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인구의 대부분이 추방되었다. 이후 남왕국의 우상 숭배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유수를 초래했다. 이 모든 시기 동안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복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여호수아서 24 장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주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많은 은택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들의 언약을 갱신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했던 것과 같이, 오로지 그들의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함으로써 이 일을 해야 한다.

원래 청중이 감동을 받아 실천에 옮기도록 하기 위해, 저자는 다시 언약 갱신에 관한 이 장에도 그의 반복되는 다섯 가지 주제를 모두 포함시켰다.

1. 하나님의 권위(Divine Authority)

첫째로, 저자는 하나님의 권위가 이러한 언약 갱신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23 장과 마찬가지로 24 장에 나오는 소집에 대한 설명(수 24:1)에도 여호수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지도자가 이 의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게다가 여호수아의 설교와 이스라엘의 반응을 전하는 부분도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시작된다(수 24:2). 이러한 도입절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가 이 장에서 일어난 일을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에 어떤 의심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이 외에도 저자는 여호수아의 설교를 계속 기록해 가면서 회중에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표자인 여호수아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밝혔다.

저자는 이 장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원래 청중에 속한 모든 이에게 그것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저자는 그들이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에서 있었던 일을 무시하고 제 길을 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둘째로, 이 언약 갱신의 이야기 내내 여호수아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했다. 그의 설교와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의 은택, 인간의 충성, 불순종의 결과라는 언약의 역학적 원리를 반영하였다. 더 나아가 저자는 여호수아의 비준 의식을 전하며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수 24:25)."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저자는 집회의 해산을 전할 때도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던지시 암시했다. 그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다(수 24:28)."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히브리어 용어 "기업(קְנִיָּה)[나할라]"을 사용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란 주제는 하나님의 은택과 충성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명히 저자는 원래의 청중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라고 촉구했다. 회개와 갱신이 없다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언약의 저주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3. 모세 율법의 규정(Standard of Moses' Law)

셋째로, 여호수아서 24 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 율법의 규정을 인정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의 설교와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는 수 24:14-15 에서 이스라엘에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가나안 족속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촉구한다. 이 지시는 신 11:28 과 같은 모세 율법에서 볼 수 있는 우상 숭배의 금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여호수아는 수 24:19 에서 "그[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출 20:5 과 같은 모세 오경의 일부를 인용했다. 저자는 그의 원래 청중의 마음에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모세의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었다.

4.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God's Supernatural Power)

넷째로, 언약 갱신을 다루는 여호수아서 24 장은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강조했다. 저자는 여호수아의 설교와 이스라엘의 반응을 묘사하며 가장 생생하게 그것을 강조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택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전했다. 하나님께서는 1 인칭으로 말씀하시며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열거하셨다(수 24:3-6a).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수 24:3 에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수 24:5 에서 "내가 애굽에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는 수 24:7a 에서 3 인칭으로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일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덧붙였다. 여호수아는 "애굽 사람들이 너희 조상들을 흉해까지 쫓아왔을 때(수 24:6b, 1 인칭 서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분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셨고] 바닷물을 이끌어 오시어 그들을 덮어 버리셨다(수 24:7a, 3 인칭 서술)."라고 언급했다. 본문은 수 24:7b-13 에서 다시 1 인칭 서술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는 수 24:8 에서 "내가 그들[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과 관련하여 수 24:12 에서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외에도 여호수아의 설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집중되었다. 백성은 수 24:17 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셨고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했다. 그들은 수 24:18 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동의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 그분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수 24:20)."고 경고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이러한 선언은 원래 청중에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켰다. 그분은 권능의 신이었고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였다. 복과 저주를 내리실 그분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분의 언약에 신실해야 했다.

(단 레이식[Dan Lacich] 박사)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관계를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 배후에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언약에 대한 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쏟아부으시는 초자연적 복들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돌아서서 그분을 계속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신실함을 유지한다.

5. 온 이스라엘(All Israel)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은 온 이스라엘의 참여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서두의 소집에 대한 설명(수 24:1)에 따르면, 여호수아의 소집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이 참석했다. 언약 갱신의 이야기를 마감하는 말미의 해산에 대한 설명(수 24:28)을 보면, “그가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온 이스라엘은 집회에 와서 언약을 새롭게 한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에 정착하기 위해 떠났다. 청중을 위한 저자의 목적은 충분히 명확하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원래의 모든 청중도 역시 그들의 시대에 언약 갱신을 해야 했다.

지금까지 언약의 충성에 관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원래 청중을 위한 언약 경고와 언약 갱신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번 강의의 세 번째 주요 주제, 곧 여호수아서 23-24 장에 대한 기독교인의

⁸ Dr. Dan Lacich is a pastor at Northland, A Church Distributed in Orlando, FL.

적용을 살펴볼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IV.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주요 부분(23-24 장)은 원래의 청중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역학적 원리, 특별히 충성의 요구와 불충으로 말미암아 직면하게 될 저주의 결과를 숙고하도록 촉구했다. 여호수아 자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세우신 언약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 이후의 구약의 청중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숙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주로 선지자 예레미야, 예수님,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이 “새 언약”이라고 부른 것에 의해 지배된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서의 이 부분을 기독교인의 삶과 연관시키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새 언약을 이해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해 예언한 것과 신약의 저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그것의 성취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렘 31:31-32 에서 한 말을 들어보라.

(렘 31:31-32)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히브리어 본문의 순서: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들은 바벨론 유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new covenant)”—혹은 “새롭게 된 언약[renewed covenant]”으로 번역될 수 있음—을 “이스라엘의 집(곧 백성)”과 “유다의 집(곧 백성)”과 맺으실 것이라고 선언한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의해 패망하고 유배를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의 사역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렘 31:31 에서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히네 야뫼 바임].”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이 장의 다른 곳(렘 31:27, 38)에서 “날이 이를 것이다[야뫼 바임]”라는 표현은 바벨론 유수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부어질 때를 가리킨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23-24 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 그들은 고초를 겪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고, 그로 인해 수백 년 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 유수 후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예레미야 31 장 33-34 절에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이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처럼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렘 31:33-34)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사실상,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철저히 변화시켜 그들이 그분께 충성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분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었다.

신명기 30 장 10 절과 같은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에 마음을 맞추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상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 장은 새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소수의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 갱신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시대와 뚜렷한 대조를 볼 수 있다. 새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촉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완벽하게 충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실 것이며, ...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더그 맥코넬[Doug McConnell] 목사)⁹ 예레미야의 약속과 에스겔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피로 비준된다는 점에서 옛 언약과 같지만, 히브리서가 분명히 밝히듯이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 죄를 없앨 수 없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더 나은 언약이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 살면서 구약 시대에는 전혀 몰랐을 수준에서 복을 받으며 이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한 묘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과 나에게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충성스러운 섬김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왜 신약 성경은 순종하라는 요구로 가득 차 있는가? 저주의 결과에 대해 경고할 필요가 없다면, 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가?

⁹ Pastor Doug McConnell is the main preaching pastor of Living Hope Church in Grantsburg, WI.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강좌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서를 성취하신 것에 대해 살펴보았던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억하겠지만,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정복과 지파들의 기업이 지향한 목표들을 세 단계(또는 세 국면)로 성취하신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초림을 통해 그분의 왕국을 **개시**하시며 이러한 목표들의 웅대한 성취를 시작하셨다. 그리스도는 교회 역사를 통틀어 그분의 왕국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그 목표들을 계속 성취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재림하심으로써 그분의 왕국을 **완성**하실 때 그 목표들의 성취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러한 성취 패턴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의 언약적 충성에 대한 요구(수 23-24 장)도 역시 이러한 세 단계를 통해 성취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소의 방식대로 신약 성경이 각 단계에서 언약의 충성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간략히 설명함으로써 여호수아서 23-24 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적용을 탐구할 것이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 왕국의 개시를 통해 성취된 언약의 충성을 살펴보자.

A. 개시(INAUGURATION)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눅 22:20 에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히 8:6 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을 읽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후 3:6 에서 자신과 그의 동료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했다.

(찰즈 쉘즈[Charles L. Quarles] 박사)¹⁰ 복음서들을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이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셨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므로 우리가 그것을 피하도록 해 주신 대속의 희생 제사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¹⁰ **Dr. Charles L. Quarles** is Director of Ph.D. Studies and Professor of New Testament and Biblical Theology at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언약을 시작하는 희생 제사로 묘사하기도 하셨다. 마태 복음과 누가 복음에서 그분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은 새 언약의 시대를 여는 희생 제사이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두 가지 방식을 강조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한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한 국외 추방이란 저주 아래 수백 년 동안 시달려 왔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은택과 자비를 보여주셨다. 삼위 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은 다윗의 위대한 자손으로 성육신하시어 성부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 충성의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이행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섬김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부활 승천하게 하시어 만유의 최고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신약 성경은 또한 참 신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덧붙인다. 이는 그들이 하늘 궁정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개시하셨을 때 그분의 놀라운 사역이 지상 교회를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하여 예언했던 완벽한 수준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했다. 1 세기 교회 안에는 바울이 고후 11:16 과 갈 2:4 에서 지칭하였던 것처럼 “거짓 형제들”이 여전히 있었다. 그러나 참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은 참 신자들을 일평생 성화의 과정에서 인도하신다. 이로써 우리는 고후 7:1 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

지상의 이러한 현실은 1 세기 동안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여호수아가 설교를 통해 경고한 것과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언약의 역학적 원리를 강조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언약 갱신으로 인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사도들은 새 언약 안에서 언약 갱신의 수단으로 정기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을 시행하도록 정했다.

그들은 몇 번이고 하나님의 은택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했다. 잘 알려진 롬 12:2 을 보면, 그들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들은 또한 그들 시대의 유형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선 사람들에게 가져올 심각한 결과들을 자주 경고했다. 우리는 히 10:29 에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말씀을 읽는다. 여호수아가 그의 시대에 선언한 언약의 경고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절들과 이와 유사한 구절들은 거짓 형제들에게 구원의 믿음에 이르라고 권면했다. 그리고 참 신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라고 권면했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면, 여호수아서 23-24 장의 다섯 가지 주제가 새 언약의 개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주요 부분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초림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을 떠올리게 된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학적 원리를 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새 언약의 역학적 원리를 세우셨는지를 떠올리게 된다. 모세 율법의 규정에 대한 여호수아서의 강조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새 언약에 비추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요구로 향하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에 대한 여호수아서의 성찰은 그리스도 왕국의 개시를 통해 드러난 초자연적 능력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인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의 이 부분이 온 이스라엘의 하나됨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요구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언약의 충성과 그리스도 왕국의 개시와 관련된 이러한 기독교적 적용에 이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경고와 언약 갱신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교회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 백성의 지속에 적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B. 지속(CONTINUATION)

우리가 1 세기의 그리스도 왕국과 오늘날의 그리스도 왕국을 비교해 보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많은 것을 성취해 오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지난 2000 년 동안,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려 오시면서 그분의 교회는 전 세계로 점점 더 퍼져 나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대에도 계속 퍼져 나가고 있다. 그러나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적들을 상대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언약의 충성을 촉구하며 강조한 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도 적용된다.

한편으로, 그리스도 자신은 여전히 하늘에서 다스리시며 하늘 궁정에서 그분의 백성을 계속 대표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에 이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어 그들의 영원한 복이 그분 안에서 확보되도록 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우리는 히 7:25 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말씀을 읽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전히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항상 교회에게 히 12:14 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상기시켜야 한다. 신앙을 공언하지만 "거짓 형제들"이고, 신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위선적" 혹은 "일시적" 신앙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 사실, 교회 안에서의 배도가 때때로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전 10:12 과 같은 경고를 선포하는 것이 옳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는 참 신자들, 곧 남은 자들은 항상 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일시적인 고난을 겪는다. 예수님께서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계 3:19)."고 권면하셨다.

(리차드 프랫[Richard L. Pratt, Jr.] 박사)¹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에 징계를 보내시는 것이다. ...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원한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신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고난, 모든 시련, 모든 징계, 심지어 그분의 언약의 모든 저주까지도 제거하지 않으신 것 또한 놀라운 선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거룩의 길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분의 도구이고 수단이므로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의 복이 나날이 풍성해질 것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주요 부분의 주제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속되는 동안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호수아서의 이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위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기시켜 준다. 여호수아서의 이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언약의 역학적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인정하고, 그분께 충성을 바치고, 그분의 언약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역학적 원리를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모세 율법의 규정에 대한 여호수아의 강조를 읽을 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에 비추어 구약과 신약을 살펴봄으로써 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반추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교회에 보여주신 초자연적 능력을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물론 여호수아서의 이 부분에서 온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춘 것은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의 하나됨을 증진시킬 것을 우리에게 촉구한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주요 부분(23-24 장)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은 그분의 왕국이 개시될 때와 우리 자신의 시대에 지속되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¹¹ Dr. Richard L. Pratt, Jr. is Co-Founder and President of Third Millennium Ministries.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실 그분의 왕국의 완성에도 적용된다.

C. 완성(CONSUMMATION)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분 자신은 그분의 완전한 언약적 충성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의 완전한 기업을 얻게 되실 것이다. 우리는 계 11:15 에서 그 때가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우리는 빌 2:11 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읽는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정화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비롯된 복들은 그들의 영원한 심판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한 저주는 그들이 견디어 내야할 영원한 심판의 서곡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신앙을 행사한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복은 그들의 것이 될 영광의 서곡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견디어 낸 일시적인 징계의 저주는 그들에게 큰 보상을 줄 것이다. 야고보가 그의 책 1 장 12 절에서 말했듯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는 새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계 22:3 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읽는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주요 부분의 주제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되기를 고대하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준다. 여호수아서의 이 부분에 하나님의 권위가 밝히 드러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소망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성에 대한 온전한 상급을 함께 나눌 것에 대하여

기뻐하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강조된 모세 율법의 규정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가능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알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보게 될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할 데 없는 표출을 반추하도록 우리를 고무시킨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의 이 부분에서 강조된 온 이스라엘이란 주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될 때 끝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신실한 사람들로 새 하늘과 새 땅이 가득 찰 것을 축하하라고 촉구한다.

V. 결론(CONCLUSION)

이스라엘의 언약의 충성에 관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주요 부분(23-24 장)을 탐구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언약 경고가 어떻게 원래의 청중에게 하나님만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촉구하고 불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이 어떻게 원래의 청중에게 그들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이 부분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적 충성의 목표를 그분의 왕국의 개시와 지속과 완성에서 성취하시는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주목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주요 부분(23-24 장)은 원래 청중에게 책 전체의 심오한 의미를 드러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정복으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분배하셨다. 하나님의 은택에 대한 이러한 실증은 여호수아서의 원래 청중이 언약의 충성으로 반응하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 믿음과 섬김으로 그분께 응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에 겸손한 헌신으로 응답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기업을 제공하신다. 이러한 제공은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구주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다.